【서식 5】

자기소개서(익명)

소 속		직 위		성 명	

'다람쥐' 라는 별명에 어울리는 행동과 습관이 만들어준 교사 인생!

어린 시절부터 가족과 마을공동체 중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책임있는 행동' 과 '부지런한 습관' 을 체득하며 성장한 저는 전라북도 남원의 한 농촌 마을에서 9남매 중 여덟째로 태어났습니다. 새마을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던 시기에 낫질을 하여 퇴비를 만들고,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땔감을 마련했으며, 소에게 먹일 여물을 준비하던 유년 시절은 저에게 '노동의 가치와 성실함을 몸으로 익히는 소중한 배움의 시간' 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 권유로 시작한 씨름으로 강한 끈기와 인내심을 기를 수 있었으며 크지 않은 체구였지만 학창 시절 축구, 탁구, 달리기 등 여러 운동을 좋아했고, 대학 때는 유도를 배우며 나약해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 체력과 정신력을 키우는 경험을 하였기에 학생들에게도 경험의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성실' 의 가르침은 제 좌우명이 될 정도로 그 당시 제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매사에 부지런히 노력하는 저를 선생님은 '다람쥐' 라고 부르셨는데, 별명에 걸맞는 사람이 되고자 더욱 부지런히 노력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광주의 외삼촌 댁에서 대학시절을 보내며 공무원을 소망하셨던 부모님의 뜻을 따라 교사로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 이후에 교사의 말과 행동이 어떤 힘이 있는지를, 은사님들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이어졌듯이 삶의 원천이 된 고향 학생들을 위해 살아갈수 있는 능력을 키울수 있도록 행정력을 펼치는 다람쥐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케이팜고등학교가 전북글로컬특성화고와 협약형특성화고의 브랜드로 정착되길

과거의 농업이 부모님의 경험에 의존하던 시대였다면, 오늘날은 AI가 접목된 새로운 첨단 농업 환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년 시절 부모님과 함께한 농업 경험에 저의 전공인 공업 기술을 결합하고, 여기에 AI 기반의 융합형 교육을 더해 케이팜고등학교만의 '협약형 특성화고 브랜드'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마이스터고에 준하는 선진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뚜렷한 목표와 도제학교를 운영하면서 갖춘 추진력이 있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936년 개교한 이래 1990년 산업화에 맞춰 공업계를 접목하고, 최근 다시 순수 농업계고등학교로 개편된 우리 학교는 지금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명확한 인력양성 유형을 정립하고 특성화고에 걸맞은 학생생활 문화를 구축하여, '전북글로컬특성화고' 및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에 부합하는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2021년 ○○○○고등학교로 부임한 이후 학교의 체제 개편을 깊이 고민해 왔으며,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의 학교가 곧 세계적인 학교가 될 수 있다' 는 신념으로 글로컬 특성화고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4년 6개월간 ○○○○고에서 근무하며 과거 마이스터고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특성화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학교와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게 된 시점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브랜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지역이 학교를 키우고, 학교가 지역을 살리는 상생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전북글로컬 및 협약형 특성화고 모델이야말로 지역의 미래를 구하고 농업계 고등학교를 선도할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확신합니다.

교사는 학생과의 만남에 책임을 지며, 학생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고민하는 사람

교사는 학생과의 만남에 책임을 지며, 학생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1995년 교직에 첫발을 내딛은 이후 지금까지를 돌아보면, 유독 지도하기 힘든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 근무한 적도 있고, 국가 정책사업의 총괄 주무를 맡아 밤낮과 주말 없이 일해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다는 마음이 가득했기에, 그 모든 과정이 결코 힘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난 학생과 나에게 맡겨진 업무는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고 교사 시절, 밤낮없이 기능특기반 학생들을 지도하느라 주말에도 퇴근하지 못하는 저를 위해 아내와 아이들은 도시락을 싸서 학교로 찾아와 주었습니다. 한때는 갈 곳 없는 제자를 집으로 데려와 한동안 함께 지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취학전이던 두 딸아이가 낯선 환경에 긴장하며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자를 돌보는 것이 교사의 숙명이라 믿었기에 제 선택에 주저함은 없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 교육청, 기업 등에서 저를 필요로 할 때면 언제든 달려갔습니다.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동료의 부탁으로 인라인 운동부 감독을 맡기도 했고, 제 전공과 무관한 업무도 기꺼이 수행했습니다. 비록 몸은 바빴지만, 새로운 분야를 두려움 없이 배우고 외연을 확장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16세라는 어린 나이에 3년 뒤의 취업과 미래를 꿈꾸며 진학한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급변하는 농업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접목하고, 산·관·학 공동체를 통해 신산업 기술 동향을 학교 교육에 신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공업교육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환경공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직업교육정책 컨설턴트 및 검토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전문성을 갈고닦았습니다.

27세의 신규 교사로 시작해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고 교감의 역할까지 수행하기까지 무탈하게 교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저의 노력뿐만 아니라, 깊은 통찰을 나누어주신 여러 교장·교감 선생님, 그리고 선후배 교사들의 훌륭한 교육철학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저의 남은 교직 생활을 고향이자 부모님의 천직이었던 농업 분야에 온전히 바치고자 합니다. 후배 학생들을 훌륭한 인재로 양성하고, 전통 있는 학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제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해 헌신하겠습니다.

농업 전문가인 교직원과 직업교육 전문가인 제가 만나 더 다채로워질 케이팜고등학교!

AI·디지털 시대를 맞아 케이팜고등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의 본질인 '지·산·학 협력 기반의 지역인재 성장 생태계'로 구축하고, K-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책임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미래 농업 혁신을 선도하는 AI팜 기반의 산업 맞춤형 인재로 자라나고, 실력과 인성을 겸비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이끌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남원형 컨소시엄'을 기반으로 지역과 학교,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상생 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학생 중심의 기본 교육력을 강화하고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인사잘하기 운동'을 통해 올바른 직업 인성을 함양하고, 안전하고 철저한 출결 관리로 성실성의 기본을 다지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전공 관련 필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당당한 취업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실효성 있는 방과후 수업을 운영하고 영농학생축제 참여 종목을 다변화하여, 우수한 입상 성과를 거둠으로써 우리 학교가 전국 농업계 고등학교를 선도하는 명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의 핵심 동력인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 진작에도 힘쓰겠습니다. 유관기관 및 혁신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산학겸임교사, 협력교사, 취업지원관 등을 위촉하고 최신 산업체 기술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겠습니다. 교사의 국내·외 우수 신산업 기관 연수 기회를 과감히 확대하고, 특히 저경력 교사의 교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며, 교원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학교를 위해 우수한 신입생 유치와 전략적 진로 설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전북글로컬 및 협약형 특성화고의 차별화된 비전을 학교장인 제가 직접 관내외 중학교를 방문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설명하는 적극적인 학교 세일즈를 펼치겠습니다. 이를 통해 내신성적과 출결이 양호한 성실한 인재들을 유입하고, 모호한 대학 진학 대신 확실한 고졸 취업 및 후학습으로의 선명한 진로 방향성을 확고히 설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졸업생의 취업 결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사업'에 공모하고, '우수 산업체 리스트 앱'을 자체 개발·보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졸업생들이 언제든 모교를 찾아와 소통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센터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분야 직무를 중심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특화 인력을 양성하고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공모 사업을 과감히 추진할 것이며, 농업·공업·AI가 융합된 프로젝트 중심 수업을 활성화하여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투명하게 소통하겠습니다. 학급 축소로 발생한 잉여 공간을 학생 복합 쉼터로 재조성하고 학교 도서관을 현대화하는 공간 재구조화를 진행하겠습니다. 학과 재구조화에 따른 기존 실습실을 최적화하고 인력양성 유형에 맞춘 첨단 실습 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주차장 및 실습실 비가림 캐노피를 설치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확보하겠습니다. 학교 후문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산책 공간 정비 및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에게도 학교를 활짝 개방하겠으며,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세련된 현수막 게첨대도 신설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생 및 교직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이 모든 학교 경영 과정과 재정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유하겠습니다. 두터운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교육 공동체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기쁘게 동행할 수 있도록 케이팜고등학교를 책임 있게 경영하겠습니다.